스리랑카 칼라팀 4월 보고서

지금, 만나러갑니다

Contents

- 단원 소개
- 4월의 일정
- 주요 활동
- 4월을 정리하며
- 앞으로의 계획

개봉박두
존윌두、민관리、
윤봉준、선체인、김꼬뚜

2013년 4월 첫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타밀 수업 -스리랑카 요리교실	2 -힌두 사원 방문	3 -힌두 지도자 만남	4 -유스미팅 -스리랑카 요리교실 -무슬림 지도자 만남	5 -타밀 수업 -유스미팅	6

2013년 4월 둘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 -3월평가 (라온아띠 커미티, 스리랑카 전국연맹 코디)	8 -타밀 수업 -유스미팅 -설문지 제작 (초안작성)	9 -스리랑카 요리교실 -설문지 제작 (타밀어 번역)	10 -타밀 수업 -칼라병원 견학 -새해시장 방문	11 -농촌 문화체험 -설문지 제작 (프린트) -유스멤버 저녁초대	12 -힌두 종교 의식 참여 -타밀 수업 -리서칭 시작 (학교방문) -커미티 미팅	13 -갈무내 새해 재래시장 방문

2013년 4월 셋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4 -타밀 싱할라 새해 유스멤버 점심식사 초대	15 -리서칭(가정방문) -앞마당 청소	16 -설문지 수거 -리서칭 (학교방문, 지역여성단체)	17 -설문지 수거 -리서칭 (부스설치)	18 -설문지 수거 -리서칭(부스설치) -설문지 통계 시작	19 -리서칭(부스설치) -설문지 통계 -커미티 미팅	20

2013년 4월 넷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1	22 -타밀 수업 -설문지 통계 -설문지 수거	23 -지역 시범학교 방문 -스리랑카 요리교실 -우물 청소	24 -설문지 수거 -타밀 수업 -350ppm 영화제준비	25 -포야데이 -350ppm영화제	26 -타밀 수업 -스리랑카 요리교실 -리서칭 통계 완료 -결과 분석 작업 (타밀어 번역)	27 -콜롬보 electric peacock Festival 참여

2013년 4월 다섯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8 -싱할라-타밀 교류 프로그램 (마타라YMCA)	29 -타밀 수업 -리서칭 결과 대자보 작성 및 부착 -싱할라-타밀 교류 프로그램 (마타라YMCA)	30 -After School 등록시작 -Y 도서관 청소 -스리랑카 요리교실				

리서칭

※ 활동 목적
스리랑카로 파견되는 9번째 기수이지만, 칼라에서 활동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4월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칼라에서 파악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라온아띠 단원들과 칼라YMCA의 역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였다.
-칼라에는 학교 수업 이외에 따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 이와 반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우리 단원들을 따라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보였다. 칼라에는 학교와 학원 외에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문화적 기반이 전혀 없다.
-이에 라온아띠 단원들은 방과 후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학교(Atti school)'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스리랑카 8기의 활동을 참고 하여 '어머니 교실(Lecture for Mother)'을 함께 구상하였다.

① 문항작성
· 유스 멤버와 함께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토의 하고, 기본적인 질문사항과 문항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 코디네이터와 함께 초안을 검토하고 문항 중 일부를 수정 하였다.
ex) 이 설문지는 물질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계를 만들어 활동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임을 명시 하였다.
· 아이들을 위한 질문지와 어머니를 위한 질문지로 나누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사자가 직접 문항지를 작성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유스 멤버의 도움으로 영어로 쓴 문항지를 현지어(타밀어)로 번역하고 인쇄하였다.

리서칭

② 설문조사 단계

○ 유스멤버의 제안

· 지역 초등학교(3곳)를 거점으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와 만남을 제안

· 각 학교 교장선생님의 사전 협조를 통해 중간고사 이후 성적표를 받으러 오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라온아띠 소개와 활동의 목적, 리서칭의 의도 및 기대를 설명한 후 설문지 배포

■ 한계점 및 수정

○ 학교를 거점으로 하여 '방과후 학교 ' 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어머니교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설문 대상 선정 한계

○ 설문조사 방식 수정

·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러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설문 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이외에도 주민들과 라온아띠 간의 친밀한 관계 맺기를 기대

리서칭

○ 직접방문조사

·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 한계점

1) 현지어 구사 능력의 한계로 설문조사의 의도 및 활동목적에 대한 설명 부족
2) 이동 간 돌발상황에 대처능력 부족
3) 조사 시간대 관련(오후) : 주민들의 낮잠 시간으로 방해가 될 수 있음
4) 시간적 제한으로 많은 설문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 개선 방안

○ 설문조사 시간 변경 :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
(오전 9시~10시 / 오후 4시~5시)

○ 현지인 동반 관련 : 코디네이터, 커미티 멤버, 유스 멤버에게 협조를 구함

○ 다수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2곳의 거점을 선정하여 부스 설치

리서칭

○ 거점중심 부스활동
·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두 곳의 시장을 거점으로 하여 부스를 설치
· 안내문 게시 : 라온아띠 소개, 활동목적, 설문의 의도 (영어-타밀어)
· 2명의 단원과 한 명의 칼라 Y식구가 한 조가 되어 두 곳에서 조사 시작

■ 장점
○ Y의 적절한 설명으로 주민들이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의도를 이해
○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으로 라온아띠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

■ 단점
○ 인파가 몰려 무분별한 설문지 배포 → 부족한 설명 → 리서칭의 목적이 왜곡될 우려(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게 할 수 있음)
○ 주민들이 길 바닥에 앉아 활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좋지 않게 봄. (스리랑카에서 길바닥에 앉는 것은 거지를 의미.)
○ 더위와 먼지가 많은 길거리에서의 활동은 팀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침

■ 커미티의 제안
○ 지역여성단체장을 역임하고 있는 커미티 멤버의 도움을 받을 것.
○ YMCA직원들(유치원 선생님 2명)이 이웃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가능

리서칭

○ 지역 단체와 YMCA와 협조

· 라온아띠 커미티 멤버 중 '칼라 여성 단체'의 총장을 맡고 있는 회원이 있었다. 우리의 리서칭을 돕기 위해 여성단체와 모임을 주선해 주었다.

1. 라온아띠에 대한 설명과 리서칭의 목적,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하였다.
2. 2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었고, 상점을 운영하는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설문지 분배와 수거 활동에 협조하였다.
3. 라온아띠 단원들은 커미티 멤버의 가정과 여성단체회원들의 상점을 거점으로 리서칭을 실시하였다.

리서칭

③ 수거 및 분석, 공지

· 여러 가지 시행 착오와 수정을 통하여 리서칭을 마무리 하였다.

· 지역주민들이 작성한 문항지를 분석하기 위해 YMCA 식구들과 타밀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함께 했다.

· 리서칭 결과를 분석하여 표로 만들고 수치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 타밀어로 리서칭 결과 대자보를 작성하여 지역 주요 거점(상점, 이동로)에 부착

■ 활동 후 소감

리서칭을 통해 느리지만 지역 사회의 요구를 작게나마 추측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알지 못 했던 여러 가지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지역의 일자리 부족, 쓰나미 이후 지역 기반 시설 복구 미흡, 문화시설 부족 등)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9기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지역에 파견 될 다음 기수 단원들과 모라투와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배 기수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라온아띠 9기가 준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어머니 교실'은 리서칭 결과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 결과

○ 방과후 학교 : 월 ~ 금 / 오후4시 ~ 5시 / 수업내용(영어, 체육, 음악)

○ 어머니 교실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 오후4시 ~ 5시 / 다양한 관심사에 관하여 강사 초빙예정

힌두와 만남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칼라 지역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힌두를 종교로 갖고 있다. 이에, 힌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칼라 주민 중 한 분을 만나 힌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타밀어 사회는 타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리랑카에서 이루고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타밀어 사회는 특히나 많은 종교들에 의해 구분되는 하위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종교는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는 공동체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준다.

○힌두교의 이해

-사원에 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사원에 들어가기 전, 세족과 머리에 물을 뿌린다. 집에서 사원까지 오는 길에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을 씻어버리고 종교 의식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힌두교는 다신교이다. 그리고 각 신을 위한 사원이 존재한다. 기독교가 유일신 종교임과 다른점이다.

힌두와 만남

○힌두인의 삶
- 출생 이전, 부모는 순산을 기원하며 사원에 예물을 바치며 아이가 완벽한 힌두인으로 출생하기를 기원한다. 출생 이후, 부모는 아이를 사원에 데려가 푸자(예배)를 드리며 앞으로 완벽한 힌두인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 힌두인의 결혼 문화
-개인의 출생 시, 정해진 16개 유형의 사주에 맞추어 같은 유형의 배우자와 결혼
- 나이, 교육수준, 직업, 가정환경, 건강 정도와 같은 배우자 선택의 기준결혼식은 사원이나 일반 예식장에서 이루어진다
-결혼 직후, 부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처가살이를 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
-결혼의 방식에는 부모의 중매결혼이 대부분이며, 소수가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한다

힌두교가 다신교인 만큼, 종교의 개방성은 어느 종교보다 커 보인다. 실제로도 힌두의 축제는 종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전체 마을 주민들이 하나될 수 있는 장이 된다. 그러나, 힌두교안에서 종교적인 기준에 의해남녀 성역할의 차별함에는 아쉬움이 크다.

무슬림과의 만남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칼라 인근 마을인 마라다무네는 무슬림기반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그 지역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무슬림 지도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이슬람의 이해
-일일 5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다른 종교와 달리 예배 의식을 드리는 모스크는 어떠한 장식(장, 벽화)이 없으며 넓은 방의 형태를 띈다. 의식은 '이맘'이라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 의식이 거행 된다
- 히잡과 사람이라는 의상을 입는다.
-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와 술 등이 금지되고 이는 하람Haram이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만을 먹는데, 이것을 하랄Halar이라고 부른다.

○ 결혼 문화
-타밀(힌두)와 같다
-혼인신고를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금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으로 혼인이 성사된다. 신부의 부모가 부부에게 집과 차등을 제공한다

○ 장례식 문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흰 천으로 싸고 즉시 매장한다. 불교에서 장례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무슬림과의 만남

○ 종교분쟁

-최근, 콜롬보와 내륙지방에서는 보두발레사나에 의한 불교-무슬림간 많은 종교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보두발레사나는 불교 외 기타 종교를 억압하는 폭력주의 싱할라-불교 집단으로서 정부 관료 극소수의 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두발레사나와의 종교분쟁은 무슬림뿐만 아니라 힌두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최근 스리랑카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만남 후 느낀점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만나는 무슬림들은 자신을 타밀이라고 소개 하지 않았다.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소개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언어 공동체보다 종교적 공동체에 보다 큰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리랑카 안에서도 소수 종교에 속하는 무슬림을 만나면서 소수 종교에 대한 불평등이나 갈등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급진적인 무리 안에서는 종교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종교 문제가 보도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종교, 무슬림을 접하면서 우리 스스로 종교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오해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서구언론에서 비춰지는 극단적인 무슬림들의 모습을 이슬람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와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가치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NGO(Save the children) 활동가와 만남

라온아띠 커미티 멤버이자 칼라YMCA 부이사장인 Mr.Jeeva가 세계적인 NGO단체인 Save the children 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리랑카의 아동문제와 NGO활동에 대해 알고 싶어서 따로 대화시간을 신청했다.

1. Save the children Sri-Lanka 활동 소개
1) 학습 관련 교육 프로그램: 공여국과 협력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한국과도 현재 1년 기간으로 협력활동 중이며 2~3년 연장을 희망하는 상태
-도서관과 학습 공간 마련
-학습지연 아동을 위한 개별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령에 맞는 학습 역량을 갖추도록 진행

2) 도서관: 스리랑카 동부지역 10개의 마을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거점화함과 동시에 아동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3) 그 외 교육 프로그램
-물과 위생: 미국과 유럽 국가와 협력하여 진행하며 내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 특색에 맞게 긴급구호 형태로도 함께 진행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
이 외에도 정부(교육/보건/복지부서)와 협력하여 아동관련 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

NGO(Save the children) 활동가와 만남

2. 스리랑카 아동문제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체 내에 아동위원회를 자체로 운영하며, 아동문제에 대해 소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토의한다.
1) 아동 학대
- 육체적인 학대의 명확한 증거와 통계. 비밀에 의한 설문조사 이후 여성 스탭이 확인
-행정부,법원,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워크샵, 소개 교육등을 진행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과 정부관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2) 내전과 아동인권
-내전 종결인 2009년 이전엔 심각하였으나 종전 이후에는 많이 호전되고 있으며
-아동 학대의 주요형태로 도시에서 14~15시간/일 아동노동이 만연한 상태
-부모의 해외취업(중동등)으로 인한 양육자의 부재로 탈선의 문제가 만연하여 있다. 또한 의무교육 연령(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만 14세 이후 노동이 가능해졌다. 이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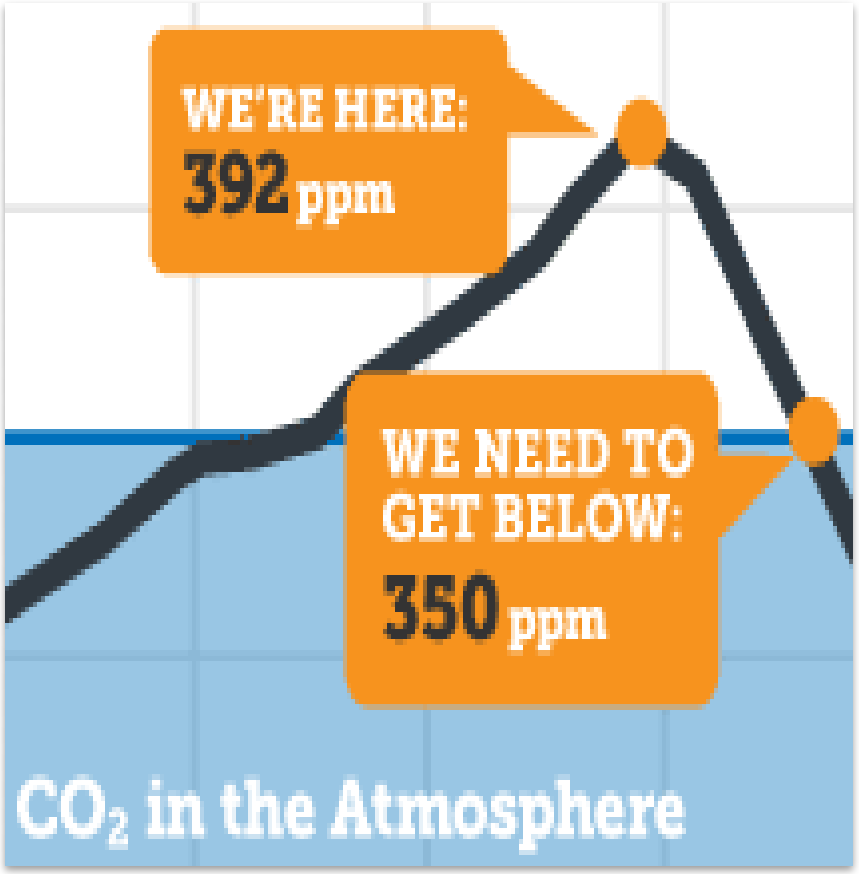
NGO(Save the children) 활동가와 만남

3. 지역사회와 라온아띠에 대한 기대
1) 칼라YMCA: 초기에는 칠드런클럼과 유스클럽의 활동이 왕성하였으나 현재는 유스의 해외취업과 결혼등으로 인해 활동이 많이 쇠퇴한 상태이다
2) 라온아띠에 대하여
-칠드런과 유스클럽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를 희망
-유스들에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알려주고, 그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대화 이전에는, 스리랑카의 아동학대와 아동노동의 문제가 심각한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변에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른 나이에 맞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NGO활동가와 만남을 통해 보편적 교육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나 있으며, 그러한 것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350ppm 환경 영화제

6월에 있을 공식적인 Eco 캠페인인 350ppm 활동 전에, 350ppm활동을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만들고자 'Green Day'라는 이름의 행사를 기획하였다. 그 기획의 첫걸음으로 보름날인 25일에 지역 청년들을 만나 함께 환경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350ppm 환경 영화제

먼저 청년들에게 우리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350ppm관련 PPT로 간단히 350ppm이 무엇인지를 나눠보았다. 스리랑카 뿐만 아니라 라온아띠가 배치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이 350ppm과는 거리가 먼 나라들이다. 그 부분에서 조금은 걱정하며 설명을 이어갔으나 진지하게 듣는 그들의 모습에 안도를 느꼈다.

곧이어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번 더 나누었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재난 영화인 '투모로우'를 보며 영화 상영시간을 가졌다.

350ppm 환경 영화제

처음에는 대다수의 지역 청년들이 환경에 관심이 없을 거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진지하게 350ppm설명을 듣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스리랑카에는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환경시간이 있었었다.

영화 상영 시 상당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알고 보니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미 수 차례 보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급하게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얼음땡 놀이) 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상영 후 그들과 환경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지역 시범학교 방문

칼라 지역의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있는 M.M.G.S(Methodist Mission Girls School)를 방문했다. 는 KOICA와 UNICEF의 지원으로 현재의 학교 건물을 지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 왜 시범 학교인가?

- 스리랑카 교육부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별로 기준에 부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공교육에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함

※ 현재 학교는 교육시설 확충으로 선정될 수 있었음

○ 시범 학교가 되기 위한 기준

① 아동인권(Child right) - 체벌금지 등

② 성 역할 평등(Gender Equity)

③ 적절한 교육(Proper Education)

- 공교육 중심의 학습환경 제공

④ 친환경적 운영(Eco-friendly)

- 잔반 남기지 않기, 쓰레기 최소화

⑤ 지역사회와 협조체계 구축
(Friendly relationship with community)

⑥ 교장의 적절한 지침과 관리 감독
(Proper guidance, management and monitoring)

지역 시범학교 방문

○ 해외기관과 협력 사업
- 코이카(KOICA)와 유니세프(UNICEF) 연계
  ① 초기 : 교육환경 개선(학교 건물 신축 등)
  ② 현재는 재정 지원(연 4회)으로 현장 학습 등 교육활동 지원
- 협력사업 이후,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학생수 증가와 출석률 증가로 효과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

○ 학교만의 특색
① 감리교의 지원으로 1939년에 개교한 명문 여학교
  ※ 현재는 남녀공학
② 상호학습 프로그램(Cultural exchange program)
  - 종교 : '무슬림 - 힌두 - 기독교' 문화체험
  - 민족 : '타밀 - 싱할라' 문화체험

YMCA 청년단원들과 활동

○ 칼라 YMCA 청년단원

칼라YMCA에 청년단원팀이 있다는 소식에 정식 만남을 신청했다. 두 번의 정식 만남을 통해 우리를 소개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나눠 보았다.

기존의 청년단원들의 수가 30명이 넘어 호황을 누리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15명의 단원들이 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단원은 5명 남짓이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소통하며 우리와의 교류가 다시금 청년단원들에게, 더 나아가 칼라 YMCA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활동들에 지속적인 도움과 교류를 약속하며 지속적인 만남과 여러 활동을 나누었다.

YMCA 청년단원들과 활동

○ 라군 체험
(라군 : 바다와 민물이 만나 새로운 어장을 형성하는 지점)

해변 인근 라군으로 청년단원들과 조개잡이에 나섰다. 손을 넣기만 하면 잡힐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의 조개들이 있었다. 손톱만한 크기로 비록 크지는 않지만 함께 잡은 조개로 이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한국식 음식을 대접하였다.

○ 농촌 체험
인근 농촌 마을인 '트레이니라바네이' 로 청년 단원들과 함께 다녀왔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진행되는 농사 일이다 보니 직접적인 참여는 할 수 없었지만, 함께 자전거로 이동하며 스리랑카의 농업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타밀-싱할라 교류 프로그램

스리랑카 남부지역인 싱할라 지역 '마타라'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기 위해 1년간 이곳에 온 한국인이자 라온아띠 선배 기수인 두 단원이 타밀 지역인 '칼라'에 방문했다.

○교류 프로그램?

- 싱할라 지역(Matara)에 거주하는 한국YMCA 두 단원이 타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라온아띠 9기와 함께 타밀 지역의 언어와 주거, 문화, 음식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나눠보았다.

○ 프로그램 내용

- 문화체험

싱할라의 대부분이 불교인 반면, 타밀의 대부분은 힌두이자 무슬림이다. 싱할라 문화권에 거주하며 절이나 불교의 문화에 익숙한 그들이 힌두 기반인 '칼라'지역에 와 힌두 사원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칼라의 해변을 함께 거닐며 '마타라'의 해변과 '칼라'의 해변을 비교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

타밀-싱할라 교류 프로그램

라온아띠 선배단원이었던 허소현 단원(4기, 스리랑카)과 양승희 단원(7기, 태국)이 2박3일 동안 함께 지내며 라온아띠 활동과 생활 등 전반에 걸쳐 조언을 해주었다. 팀원들 모두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들이였다. :)

타밀-싱할라 NewYear-Day

○ NewYear-Day

4월 14일, 스리랑카 최대의 명절인 '뉴이어데이'가 있었다. 짝수기수에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홀수기수에는 '뉴이어데이'가 있다는 말이 있듯 그만큼 스리랑카에서는 중요한 날이다.

전국적으로 새해를 기념하는 이 날은 타밀지역인 칼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YMCA청년단원 코디네이터인 Keerthanan의 집에 초대받아 타밀의 전통음식과 차를 마시며 그들과 함께 '뉴이어데이'를 나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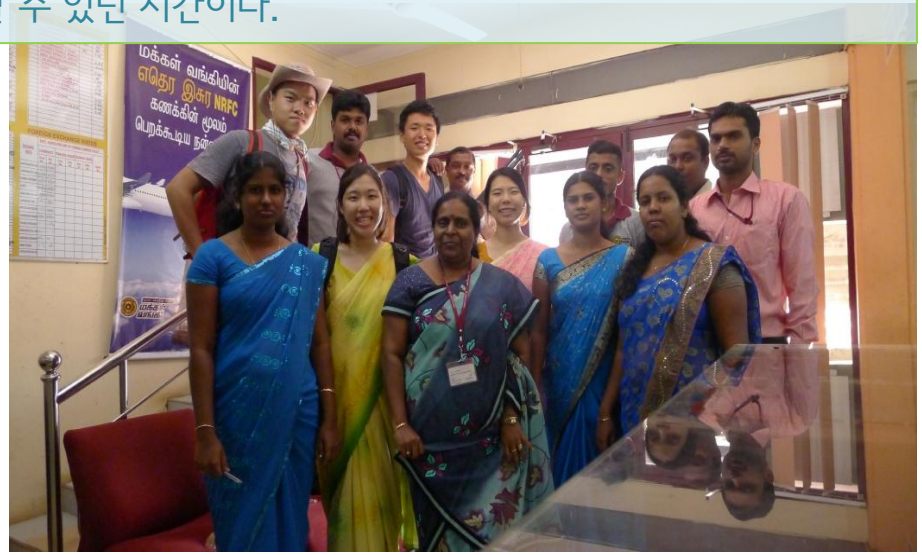
타밀-싱할라 NewYear-Day

○ 새해 시장

인근 도시인 칼무네에서 새해를 맞아 큰 시장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보았다. 칼라에서는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건물에서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 차 있었다.

스리랑카에서는 새해에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단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관습인지라, 직접 단 음식을 만들거나 주로 바나나를 많이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장에 가기 전, 인근 은행에 가 보았는데, 새해를 맞아 모두들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지며 그들의 일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다.



—— 칼라에서

속닥속닥

우리들의 이야기——

더워도, 너무 더워

요즘 들어 스리랑카 동부지역의 날씨는 35도를 넘나들고 있어요. 숨쉬는 것만으로도 땀이 나는 것만 같은 날씨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두세 개씩 먹으며 더위를 극복해보려고 하지만, 역부족!_!

두둥, 앞으로는 6월까지는 계속 더 더워진다는 데 걱정이에요.
선영석 단원과 김나래 단원은 25살에 땀띠가 생겨서 고생, 고생하고 있다는...

하루걸러 단수 이겨내기——

4월의 스리랑카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틀에 한번씩 수돗물을 공급해줘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가 조그마해서, 하루 물이 나오면 그 다음날은 물이 나오지 않는 생활이 이번 달 내내 계속 되고 있어요.

계속 되는 단수를 이겨내기 위하여, 단원들은 씻을 때 마다 YMCA건물을 이용하고 있구요. 또, 빈 병에다 물을 채워서 비상시에 쓰고 있답니다. ☺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다들 아무 불평 불만 없이 단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칼라팀은 현지에서 인터넷과 휴대폰을 쓰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인터넷과 휴대폰을 쓰지 않고 살기 시작한지 2달 차, 세상소식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곳, 스리랑카에서 영자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속의 스리랑카소식을 통해 스리랑카 지역현안을 파악할 수 있었구요. 해외소식을 통해 국제자원활동가로서 국제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스리랑카 신문 구독

한편, 하루가 멀다 하고 언급되는 한반도 위기상황은 팀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사실 세계적인 분쟁지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도 아프리카도 아닌 한반도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한반도에서 살아갈 청년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육식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비인도적인 공장식 축산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Meatless Monday 운동의 일환으로 Kallar에서도 주1회 채식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Meatless Friday :D

Kallar지역의 힌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로 금요일에는 채식을 해요. 이에 우리는 Meatless Monday 운동을 현지에 맞게 Meatless Friday로 바꿔 실천하기로 하였답니다.

Meatless Friday는 채식 하는 것 외에 Kallar의 채소 요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줘요. 또한 우리에겐 생소한 채소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Kallar 생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스리랑카 칼라에서 생활 하다 보니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타밀 음식이 단원들 입에 너무나도 잘 맞는 바람에 팀원들의 몸 상태가 건강함을 넘어 곤루(뚱뚱)가 되었어요:P 그래서 하루의 더위가 시작 되는 오전 7시 전에 단원들 모두 체력 관리 겸 운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일 운동을 할 때면, 아침에 출근하는 주민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매우 즐거운 운동시간이랍니다.

운동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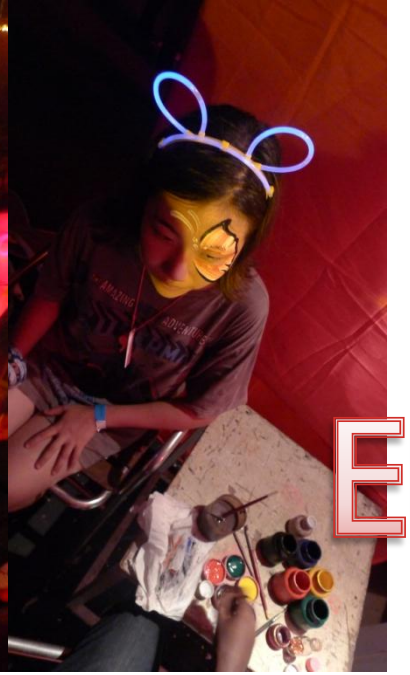
요즘은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스리랑카 현지사람들도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해요. 나래 단원이 며칠 째 목이 따끔따끔해서,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갑자기 하루 정도 입원하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모두들 당황했어요. 외국인 환자가 처음이었던 칼라병원에서 이날 나래단원은 슈퍼스타가 되었답니다.
스리랑카의 정부병원은 모든 것이 무료에요. 약도 무료, 주사도 무료, 심지어 제공되는 식사들도 전부 무료에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누구든 어떠한 장벽 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스리랑카의 의료시스템이 매우 부러운 하루였어요. 아, 나래단원은 이후 완벽하게 회복하여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D

일일 병원 체험기

칼라팀이 오기 전에, YMCA에서 앞마당을 정리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도착하니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단원들끼리 청소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포크하이스쿨에서 청소도구를 빌려 덥지 않은 오전시간에 정리를 감행했답니다.
앞마당에 있는 쓰레기와 건축폐기물을 제거하고 마른풀을 뽑아내어 깔끔히 정리를 하고 보니 우리 집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마당, 우물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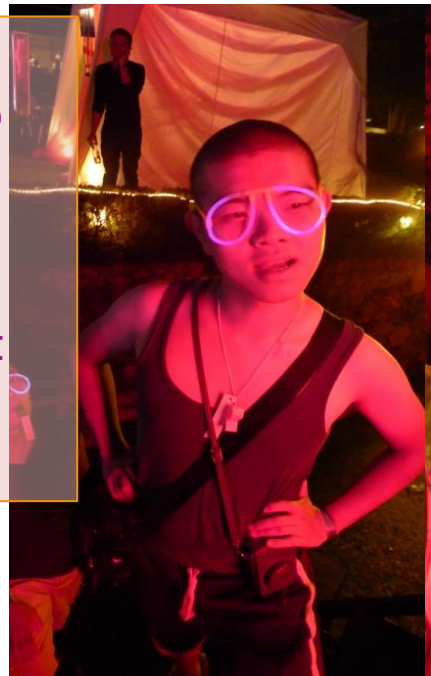
건기가 되고, 이틀에 한번씩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적은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에 물을 받아 쓰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혹시나 물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물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쓰나미 이후, 우물이 오염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기에 펌프로 오염된 물을 빼내고, 화학물질을 소량 투입하여 정화작업을 마무리 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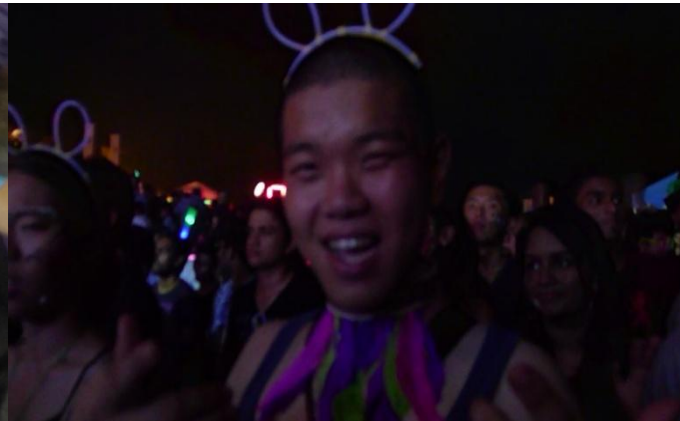
칼라에 온 이후, off-day 첫번째 외출!
· 언제? 4월의 마지막주 토요일 (2013. 4. 27)
· 어디서? 콜롬보(Colombo)의 한적한 워터엣지
· 무엇을? Electric peacock festival을!

Electric Peacock Festival

We believe that art and culture as a powerful tool to promote pluralistic values and peace and try to mingle the power of art and culture and the strength of youths' creativity to create strong reconciliation process. It aims to establish youth based network to enable the young people, to act as prime contributors in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through art and culture.



Electric Peacock Festival



4월을 정리하며

3월이 스리랑카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더라면, 4월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였다.

지역의 니드(Need)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시행착오 만큼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다소 느리지만 천천히 지역사회의 요구를 알아가고 분석하며 마을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간이었다.

또한 나 자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한 달이었다.

특히 칼라 코디네이터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조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같은 아시아 생활권 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정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이해 못 할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4월은 조원 모두에게 힘든 한 달이었다. 코디네이터와의 활동에서 오는 실망과 낙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앞으로의 일정 (5월)

○ 아띠스쿨 개교 (방과후 학교)
- 리서칭 결과를 토대로 주 5일 방과후 학교 개설 예정
- 준비작업 : YMCA 도서관을 교실로 활용하기 위한 정리작업 (폐가구 이동, 먼지제거, 물청소, 페인트 작업)
- 요일별 과목 : 월/수(영어), 화/목(체육), 금(음악)
- 수업시간 : 오후 4시~5시

○ YMCA 전국연맹 유스 캠프 참여(5/22~25, 트링코 말리)
- 전국단위 프로그램으로서, 라온아띠 단원들도 칼라YMCA 소속으로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음
- 문화적 교류, 지역사회 발전, 리더십, 청년연대, 자신감 등의 주제를 가지고 동부지역 트링코말리에서 진행될 예정임.

○ 1차 어머니교실
- 리서칭 결과를 토대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어머니교실 예정
- 지역 여성들의 관심사를 토대로 주제 선정 및 강사 초빙 예정

○ 코디네이터 결혼식 참석
- 코디네이터이자 칼라YMCA 사무총장인 John의 결혼식에 초대
- 가톨릭인 신랑과 힌두인 신부의 2차례의 결혼식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예정

나, 너 그리고 새로운 우리를 만나는 시간